

# 분당 시간표 받아들이고 중립파 포섭·주도권 선점 '전쟁'

## 국민의당 통합찬성·반대파 결별 난타전 점입가경

### 통합파 내달 13일 전대 "박·정·천 잘못 끼운 단추" 반대파는 다음달 6일 창당 "안빠고 다 민평당 와라"

설 명절(2월16일) 전 결별이라는 분당 시간표를 정한 국민의당 내 통합찬성파와 반대파가 30일 막바지 결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당안 의결을 위한 2·4 전당대회가 마지막 변수로 남았으나 지난해 10월말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으로 불거진 국민의당 내홍도 '분당'이라는 이름으로 그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안철수 당대표를 필두로 한 통합찬성파는 다음달 13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통합전당대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이에 맞서는 반대파는 내달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목표로 뛰고 있다. 이에 앞서 내달 1일에는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어 조직 구축과 함께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광주시당 창당대회는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비즈니스홀에서, 전남도당 창당대회는 같은 시각 여수시민회관에서 연다.

결별 시간표를 확정했음에도 양측은 상대를 향한 날 선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당내 중립파를 포섭해야 한다는 계산, 분당 직후 제 3지대 주도권 자리를 거머쥐기 위한 기선제압을 전조전 성격이다.

안 대표는 이날 별도의 공식일정은 잡지 않은 채 주변 인사들을 만나며 합당을 위한 물밑작업을 이어갔다. 지난 29일 박주선·김동철·주승용 등 중립파 의원들

과 만나 '백의중군' 입장을 밝힌 안 대표는 이날도 중립지대나 당 외부 인사들을 영업해 의견을 넓히는 데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과 통합추진위원회가 활동이 뜸해진 이날도 분과별 모임을 활발하게 하면서 합당을 위한 사전작업을 이어갔다. 1일 신당당명 결정, 4일 국민의당 전당대회, 5일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거쳐 13일 통합 전대를 통해 통합정당을 설 법상에 올리겠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통합정당의 지도체계, 안 대표나 유승민 대표의 역할론에 관해서도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인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저는 서울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안 대표든 유 대표든, 아니면 두 분이 경쟁을 하시는 필요하면 출마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반대파를 겨냥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 의원은 "이른바 '박정천(박지원·정동영·전정배 의원)'에 대해서는 잘못 끼운 첫 단추라는 얘기가 있다"며 "이들은 처음부터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이제까지 함께 있었다. 이제는 서로 갈 길을 가는 것이 옳고, 그래야 신당의

취지도 잘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반대파인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역시 내달 1일 5개지역 창당 결의대회, 6일 중앙당 창당 결의대회를 연다는 스케줄 아래 분주히 움직였다.

이날 조배숙 창준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 박주선 장정숙 의원 등이 도라산역에서 '평화열차 토크' 행사를 여는 등 대북 강경론에 가까운 당 지도부와는 완전히 달리, 평화개혁세력을 표방하는 정당임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중립파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세 불리기에 나섰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중립파들과 얘기를 해보면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해야 한다"며 "저 개인적으로는 (중립파가) 민평당의 대표든, 원내대표든, 정책위의장이든, 시장·도지사 후보든 전부 다 해도 좋다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민평당 창당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ABC'다. 'Any one ok! But Chulsoo'라는 뜻"이라고 남겼다. 안 대표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립파 의원들도, 인질로 잡힌 비례대표 의원들도, 당직자·당무위원도 모두 같이해야 한다. 심지어 국민의당 정체성에 동의하고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바른정당 의원도 있어도 좋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고 당을 사당화한 안철수만은 안 된다"고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얼굴 감싼 주승용 바른정당 유승민(뒷줄 오른쪽)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해 있다. 유 대표 왼쪽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얼굴을 감싸 채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 유승민 "통합신당 초기 성공 위해 안철수 공동대표 말아야"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초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30일 통합신당의 초기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과 안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유승민 백의중군론'에 대해 "(내가) 안 대표와 공동대표로 지방선거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안 대표께서 백의중군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게 쉽지 않고 마음에 걸려 하지만, 안 대표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제 말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안 대표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일찌감치 '통합 이후 백의중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지만 유 대표는 전날에도 안 대표를 만나 공동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유 대표는 또 "제 생각을 계속 전달했기 때문에 안 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에 대해

서는 생각을 안 해 봤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있었던 중재파 의원들과의 오찬에 대해서는 "제가 회동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안 대표가 저에게 그분들을 설득해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을 하길래 함께 만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와 달리 유 대표가 공동대표론을 고집하는 것은 바른정당이 지난해 1월 창당 이후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우지 못해 창당 초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 마음은 민평당에... 국민의당 못 떠나는 비례대표 3명

### 박주현·이상돈·장정숙 통합신당 '당내 야당' 활동

국민의당이 실질적 분당 국면에 접어들어 가는데, 반안(반안철수)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반 통합파로 명확하게 분류되는 비례대표 의원은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3명이다. 여기에 중립 성향의 박선숙 의원과 최도자 의원도 반통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박주현·장정숙 의원은 지난 28일 민평당 창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며 안 대표와 정치를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통합 추진 초기부터 강력히 반발해온 이상돈 의원은 경우 전당대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민평당 창당발기인으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개혁 신당 추진위원회 선언문에는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안 대표와 통합파 지도부는 지난 28일 이들 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 당원권을 2년 동안 정지하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

박선숙 의원도 실질적으로 반 통합파 성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공보수석을 지내는 등 박지원, 최경환 의원 등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입장이다. 민주평화당 창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박선숙 의원이 결국 우리와 함께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수 출신의 최도자 의원도 중립적 입장이지만 여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승용 의원이 반통합으로 돌아설 경우, 함께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반통합파 비례대표 의원들은 통합신당에 승선하더라도, 민평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출당이나 제명이 아니라 자의로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당론에 반하는 소신투표를 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의 사례처럼 당내에서 반대파로 활동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평당 창준위는 안철수 대표가 비례대표 출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막판까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통합파의 전대가 무산되면 사실상 합의 이혼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탈당을 원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평당 창준위의 관계자는 "인질정치에서 벗어나 합의 이혼이 깨끗한 것 아니냐"며 "합당시 비례대표 당직 유지와 관련한 법 조항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관련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文대통령 "혁신의 주체 되지 못하면 대상 될 수 있다"

### 장차관 워크숍 주제 내각 질책 '공직 기강 잡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내각 등 공직 사회 전반을 향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며 작심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정권 출범 때부터 시작된 전방위적 개혁 드라이브가 아직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일종의 '기강잡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 공식사회의 병폐를 상징해온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이라는 수식어를 동원하며 과감한 혁신을 강조했다. 과거를 답습하는 구태를 보이는 공무원 조직에 실망감을 표출하는 동시에 강한 경고를 담은 '엘로카드'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내각을 강도 높게 질책한 데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가 촉발점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불과 3일 만에 밀양 화재사고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그는 대책이 아니라 실효적인 대

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장·차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섬세하게 살피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에서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전날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후속조치를 언급하며 "각 부처 장관은 적어도 채용비리 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무안공항 출발]

# 일본(기타큐슈, 시라하마, 돗토리),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의 시작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쭈우욱~~~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

### 무안 ↔ 일본 기타큐슈(야마구치)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1:00)

**[특가상품(일요일 출발)]**  
북큐슈 특급호텔 1박+온천펜션 1박 **499,000원**~  
북큐슈(벳부, 후쿠오카, 기타큐슈)  
...**[실속] 579,000원** ~ **[폭격] 749,000원**~

야마구치(하기,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실속] 699,000원** ~ **[폭격] 769,000원**~

**설 연휴 매일 출발합니다.[2/14(수)-2/20(화)]**

**[폭격] 북 큐 슈 998,000원**~  
**[폭격] 야마구치 998,000원**~  
**야마가세 온천별장 699,000원**~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무안 ↔ 시라하마(와카야마, 오사카)

**2018. 1. 5(금) ~ 1. 26(금)**

주 3회 출발 / 일요일(3박4일) 수, 금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3:00) → 시라하마(14:40) / 시라하마(15:30) → 무안(17:10)

**[특가상품(수요일 출발)]** 와카야마, 오사카, 나라, 교토 **669,000원**~  
**[폭격] 오사카, 와카야마 798,000원**~  
**[고폭격] 오사카, 와카야마, 나라, 교토 898,000원**~

### 무안 ↔ 돗토리

**2018. 2. 15(목) ~ 3. 1(목)**

주 3회 출발 / 토요일(3박4일) 화, 목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 → 돗토리(12:20) / 돗토리(13:00) → 무안(14:20)

돗토리(요나고, 마츠에) 3일 **[실속] 588,000원** ~ **[폭격] 678,000원**~  
돗토리(요나고, 마츠에, 이즈모) 4일 **[실속] 768,000원** ~ **[폭격] 828,000원**~

**설 연휴 단, 하루! [2/15(목)-2/17(토)]**

**[폭격] 돗토리, 요나고, 마츠에 3일 1,098,000원**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무안 ↔ 다낭·후에·호이안

**2018. 2. 2(금) ~ 5. 18(금)**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 요금은 순복합요금 기준

**[실속]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노립·노옵션]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869,000원**~ / 3박5일(금) **969,000원**~

**[골프] 다낭 GOLF 54홀**  
3박4일(화) **1,199,000원**~ / 3박5일(금) **1,299,000원**~

※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항공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상보험: 1억원, 국내보험 500만원), 관광진흥법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비행 및 선박, 전철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 / 여행경비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회사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입국료, 기차/기타도 분사료, 선박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